

# ‘광주비엔날레 날레 연구실’ 신설 된다

광주비엔날레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기획실(가칭·이하 연구실)이 신설될 전망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국내외 미술가 전문집단인 연구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 오는 28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신정아 사건 이후 불거진 광주비엔날레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달 열린 비엔날레 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현재 비엔날레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재단 안팎에 폭넓게 형성돼 있어 이사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단은 15일 “지난달 열렸던 ‘광주비엔날레 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 가운데 우선 연구기능 강화와 총감독 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실추된 위상과 정체성을 추스려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단이 확정한 개혁안은 크게 ▲연구실 신설 ▲문화 CEO 영입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포함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연구실 신설은 매년 예술감독이 바뀔 때마다 ‘새판짜기’를 함으로써 광주비엔날레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없다는 미술계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연구실을 실질적인 비엔날레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엔날레 연구실은 무엇보다 총감독 선임을 위한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인 인재풀을 갖지 못한 재단의 시스템 부재가 가져다온 신정아씨를 예술감독으로 선정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감독추천에서부터 선정, 검증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문가 그룹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연구실의 규모를 팀장 포함 3~6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술관계자들은 연구실이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살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국내외 미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기획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6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출품작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국내외 미술 전문가로 구성 ... 싱크 탱크로 재단, 문화 CEO 영입 등 개혁안 28일 상정

해서는 학연, 인맥을 떠나 국내외 미술계를 아우른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년에 한번씩 새로운 이사장과 예술감독이 비엔날레를 치르는 현행 방식에선 비엔날레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균 전 비엔날레 이사는 “연구실은 아시아미술과 세계미술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학술적 기

능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연, 지연을 떠나 미학적 철학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해야 하며, 역량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대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명예이사장과 이사장을 통합해 이사장은 핵심 사안만을 의결하고, 문화 CEO가 인사·예산·사업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책임 경영에 나서는 방안을 개혁안에 포함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국어로 작품 해설

휴대용 단말기 통해 ‘안내 서비스’

불·영·독·스페인·일어 등 이어 7번째

세계 최고 문화유산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앞으로 한국어로 흘러 나오는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과 루브르 박물관은 12일(현지시간) 루브르 박물관에서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한 ‘한국어 안내서비스’ 시행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앙리 루아레트(Henri Loyrette) 루브르 박물관장, 조일환 주프랑스 한국대사 등 양국의 정부 및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어 작품해설은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에 이어 7번째로 루브르 박물관 측이 작품해설 휴대용 단말기를 후원한 대한항공에 보답하는 의미로 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 관람객들이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한국인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상’ 등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600여 점의 작품설명을 PDA를 통해 한국어로 정취할 수 있게 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화폭에 담긴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

조정란씨 무등갤러리서 첫 개인전

4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 온 서양화가 조정란씨가 오는 2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15년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갖는 첫번째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조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비록 남도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교사, 주부, 엄마라는 바쁜 일상에서도 꾸준히 창작활동에 매달릴 만큼 그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담은 ‘풍경’시리즈, ‘순천만’, ‘오이도’를 비롯해 ‘모란’, ‘수련’, ‘사랑’ 등 정물화 40여점이 선보인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광주시 미술대전, 전남도전에서 수상했으며 광주사생회전, 영호남 교류전, 호수 시드니작가 교류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광주사생회,



조정란 작 ‘풍경’

광선화우회 회원이며 광주 두암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지역 수필문학회 작품집 발간 잇따라

최근 지역수필문학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광주수필문학회, 정검다리 수필문학회, 무등수필문학회 등 대표적인 수필문학회가 잇따라 작품집을 발간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30여년 동안 광주지역 수필가들의 동인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수필문학회(회장 장정식)가 마흔여섯 번째 작품집을 발표했다.

이번 수필집에는故 김구봉 수필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특집으로 다뤘으며, 강환식·김익환·백희동·양희욱 씨 등 회원 40여 명이 그간 틈틈이 써온 60여 편의 작품이 함께 실렸다.

정검다리수필문학회(회장 임지택)도 최근 여섯 번째 동인지출간했다.



김순영·유순남 등 회원 5명은 ‘만남의 그날’이라는 주제로 만남에 관한 추억을 글로 담았고, 문정길·송미란·정재환·박인순씨 등은 ‘첫발을 내딛다’를 통해 등단작을 선보였다.

또 진숙·양전석·강민주·김명화 등 회원 20여

명 ‘사랑이 꽃피는 나무’ ‘삶의 현장’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등으로 주제를 나눠 삶의 다양한 면을 글로 풀었다.

무등수필문학회(회장 최은정)는 열여덟번째 작품집 ‘나무의 첫사랑’을 발표했다.

작품집에는 지역 문단의 원로 작가인 김용복 선생을 기리는 회원들의 글과 함께 김지현·정태현·박용수 등 회원들의 작품 33편이 실렸다.

장정식 광주수필문학회장은 책머리에서 “수필이야말로 거짓이 없어야 하는 문학장르”라며 “따스한 가슴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보고 그 속에 진솔한 마음을 담았을 때 독자가 공명(共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조규철 바리톤 독창회 19일 전남대

조규철(사진) 바리톤 독창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3호관 연주실에서 열린다.

조씨는 이번 독창회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그대의 눈길을 그에게 돌려요’,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지’ 중 ‘토니오의 프롤로그’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중 ‘야영원히 너를 잃었는가’ 등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또 하이든의 대작 오라토리오 ‘사계’와 우리에게 ‘라르고’로 알려진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토스티의 가곡 ‘아디오’ 등도 선사한다.



알프레도 카스텔라를 졸업했으며 비즐리아노 비바 국제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는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윤정미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정월 대보름 행사 개최

15년 동안 해마다 정월이면 재래시장 마당 밭이와 정월 대보름 굿을 진행해온 전통문화예술단 굴림이 올해도 어김 없이 행사를 준비했다.

굴림은 17일 오후 3시 옛 전남도청 앞 민중중앙 앞에서 정월대보름 굿을 공연한다. 이어 20일에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일원에서 마을의 단합과 화목을 위해 집집마다 건강과 복을 빌어주고, 신명나게 환관 여우러지는 ‘마당밧기’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062-523-0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business services, and local news.